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서 혜 전*

이 미 애**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하였다. 대상아동의 선정은 지역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S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중 다문화 아동 4명을 선정하여 주 1회 총 24회기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를 적용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검사에서 사전검사보다 치료 후의 사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K-HTP 그림검사 분석에서도 사전, 사후 분석 결과 인물의 크기, 선의 사용, 상징에서 변화들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자아존중감, 사회성, 미술치료

· 논문접수: 2016. 04. 23 / 수정본접수: 2016. 06. 23 / 게재승인: 2016. 07. 28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제1저자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yma1322@hanmail.net)

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국제교류의 기회로 이어지는 긍정적 영향 뿐 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부정적 영향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저개발국가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의 이동이 확산되고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개발국가에서는 육체적 노동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젊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민자들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노동기피현상은 노동이민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국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남녀 고용평등의 제도적 확대, 도시문화의 익숙함 등은 여성들의 결혼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져 문화적 환경이 다른 외국여성들과 혼인하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켜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단일문화가족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단일문화사회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통계청(2014)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는 1990년에 1.2%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12.2%(87,964명)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125,673명, 2011년 141,654명, 2014년 149,7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전행정부(2015)의 보고서 자료에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가 2007년 44,258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107,698명, 2011년에는 151,154명, 2014년 204,204명, 2015년에는 207,693명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가 2007년 14,654명이던 것이 2012년 46,954명, 2013년 55,780명, 2014년 67,806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재학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8,297명으로 71.2%이고, 중학생이 12,525명으로 18.5%, 고등학생이 6,984명으로 10.3%를 차지해,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이와 같이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였으나, 단일문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편견은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수용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다른 외모로 인한 따돌림,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혼혈아라는 차별, 이중 문화에서 오는 정체감 혼란(박수정, 2009)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언어 지체와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도와 학교부적응을 보이는 경우가(신혜성, 2007) 많다. 이시기에 겪게 되는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한 지지가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며,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 정서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서 소극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위축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으며(이현주, 2011), 자신감의 결여로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또래아동에 비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낮은 사회성 발달을 보이게 된다(서정희, 2009).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은 또래관계 적응 및 학교적응에도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 판단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적응과 바람직한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Rogers, 1951, 배홍숙, 2014 재인용)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깊은 아동기의 중심발달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반면(배홍숙, 2014)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학교적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거나 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도 있게 된다(남정순, 2014).

그리고 사회성은 개인이 태어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생활에 적응하여 또래관계 대인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김현영, 2015), 혹은 한 개인이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난 사회에서 생활하며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가치, 신념, 태도(주희연, 2012)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한 개인이 태어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가치, 신념, 태도 등으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이중문화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황매향, 하혜숙, 강지현, 여태철, 2014).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학교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며, 그 중 또래친구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남정순, 2014)는 연구에서와 같이 이들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대상인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적응이라는

과업에 내몰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는 장으로서의 학교생활의 적응이 나아가 사회적 적응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적응이야말로 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며, 자기수용과 인간관계의 허용을 경험하는 척도(박수정, 최연실, 2009)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2015)에서 발표한 다문화 학생교육지원계획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13년도 461명이던 것이 2014년 5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문화 가정의 아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초등학교의 경우가 2013년 461명 중 278명, 2014년 571명 중 328명으로 57.4%로 중고생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 일반아동의 중퇴율이 1.1%인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다(남정순, 2014). 또한 학령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국제결혼자 중 여성이민자와 한국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아동의 성장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로 학과공부를 위한 학습지도에 치중되어있으며, 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김효지, 2010, 이현주, 2011)이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동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언어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미숙하거나 강한 저항을 보이게 되므로(송유진, 2008), 언어적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언어적 기법의 하나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매개로 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전수정, 2009), 아동에게 있어 집단미술치료는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삶이 의미를 지각하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고(조용태, 이근매, 이도균, 2004), 이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사회적 기술발달을 촉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선남,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집단미술치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조용태, 이근매, 이도균, 2004),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송희정, 김희정, 김선현, 2007, 박수정, 최연실, 2009, 조영숙, 201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과(이현주 2011), 국제결

혼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도 효과적이라(오가영, 이숙, 2009)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술치료 회기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 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시 D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 중 선별하여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10부터 1월 24일까지 총 22회기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까지 60분간 심리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으로, 이영자(1995), 정현임(2006), 박명숙(2010)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검사지이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대상	일반적 특성
A아동	부(아동이 3세 때, 사망)는 중국에서 일을 하다 돌아 가셨으며, 모(32세)는 캄보디아에서 왔으며 현재 공장에 다니고 있다. 할머니(62세)와 사촌형(14세, 남)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A아동(8세 남)은 산만한 편으로 활동적이고 집중을 잘 하지 않고 호기심이 많다. 자주 아프고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며 활동적인 성향으로 또래관계에 다툼이 많은 편이다.
B아동	모(33세)는 캄보디아에서 왔으며 공장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부(38세)와는 재혼하여 임신 중이었으며, 프로그램 중 동생(남)이 출생하였다. 재혼한 부(38세)는 B에게 자상한 편이며, 목욕탕 관리인으로 근무 중이다. 모는 화를 잘 내는 편으로 B아동(8세, 여)은 모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동생(1세, 남)이 태어나게 되면 아동의 성씨가 바뀌어야 하며, 동생이 태어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변할까봐 걱정을 한다.
C아동	모(35세)는 베트남에서 왔으며 현재 자녀가 4명으로 주부이며 시간제 일자리가 있을 경우 일을 한다. 모는 한국어를 하기는 하나 능숙하지는 않으며, 부(40세)가 폭력적이고 화를 잘내는 편으로 부와는 대화를 잘 하지 않으며, 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C아동(13세, 여)은 1남 3녀 첫째로 동생들이 많아 모가 일을 하러 갈 경우 동생들을 모두 돌봐야 하는 부담감으로 힘들어 하며 자유롭고 싶어 하며, 동생들이 빨리 자라고 더 이상 모자 동생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C아동은 에너지가 낮으며 힘이 없이 통제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D아동	C아동(10세, 여)은 C아동과 자매 지간으로 1남 3녀 중 둘째로 욕심이 많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이다. D아동은 활동적이며 끼가 많은 아동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 통제가 잘 안되는 편이다. 음식에 대한 욕심도 많고 눈속임과 애정에 대한 갈구 등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존중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척도로써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로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문항 3, 5, 8, 9, 10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로 4점 척도로 하지만, 채점할 때는 역 채점으로 처리한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성 검사

사회성 척도는 김종두(2010)가 개발하고 김현영(2015)이 사용한 검사지로 초등학교 사회성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성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로 개발된 사회성 척도이다.

이 척도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협력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6번째는 역 문항으로 채점할 때 반대로 처리한다. 점수범위는 17점에서 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치료가 아동이 자아존중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사전, 사후 사회성 검사 척도를 실시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K-HTP를 실시한 후 아동의 심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4.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의 차이 및 능력의 차이에 적절하게 주제의 제시와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먼저하고, 작업하기를 실시하였으며, 작품 완성 후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자기표출을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환경에 대한 인식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회기별 미술치료 활동 과정(24회기)

회기	주제	기대효과
	사전검사	K-HTP,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성 검사
1회기	이름꾸며 표현하기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 이해 및 라포형성
2회기	목걸이 만들기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개념 인식 및 라포형성
3회기	종이동물	자아개념 인식 및 자기표출을 통한 라포형성
4회기	점토만들기	심리적 이완 및 스트레스 해소, 라포형성
5회기	자유화	심리적 이완. 자기 내면 감정 이해 및 욕구발산

〈표 2〉 회기별 미술치료 활동 과정(24회기)

(계속)

회기	주제	기대효과
6회기	자유화	심리정서적 이완, 자기 내면이해 및 욕구발산
7회기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긍정적 감정 회복, 관계증진
8회기	개구리 알	심리적 이완 및 자아존중감 향상
9회기	풍경화	자아개념 인식 및 현실지각, 사회성 증진
10회기	비오는 날	스트레스에 대처 능력 및 아동의 내면 이해
11회기	난화그리기	심리적이완 및 긴장완화, 내면 표출 및 자기탐색
12회기	움직이는 고양이	자기만족감 및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
13회기	요술나무	자기인식 및 자아존중감 향상, 상호작용 증진
14회기	자유화	심리정서적 이완 및 사회성 증진
15회기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탐색 및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증진
16회기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자기탐색 및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증진
17회기	카드만들기	자기탐색 및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증진
18회기	연필짜기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
19회기	튜브벨	심리적 이완 및 협동놀이를 통한 사회성 증진
20회기	머리핀만들기	자아존중감 및 관계 형성, 사회성 증진
21회기	손수건 염색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성 증진
22회기	메모꽂이	자기표현능력 향상, 대인관계향상, 사회성 증진
	사후검사	K-HTP,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성 검사,

Ⅲ. 연구결과

1.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 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A아동의 사전점수는 21점에서 사후점수는 29점으로 나타났으며, B아동의 사전 점수는 25점에서 사후 점수는 32점이며, C아동의 사전점수는 28점에서 사후 점수 33점, D아동의 사전 점수 23

점에서 사후 점수 36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실시하기 전보다 5~13점 증가 하였다. 이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사전 사후 점수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자아존중감	A아동	21	29
	B아동	25	32
	C아동	28	33
	D아동	23	36

2.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 후 사회성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은 A아동의 사전 점수는 46점에서 사후점수는 51점으로 나타났으며, B아동의 사전 점수는 49점에서 사후 점수는 52점이며, C아동의 사전점수는 50점에서 사후 점수 51점, D아동의 사전 점수 40점에서 사후 점수 57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실시하기 전보다 1~17점 증가 하였다. 이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사회성 척도 검사 사전 사후 점수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회성	A아동	46	51
	B아동	49	52
	C아동	50	51
	D아동	40	57

3.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K-HTP는 그리는 사람의 내면이 표현되는 것으로 아동의 정서와 자아 및 대인관계에 대

해 이해 할 수 있으며, 집-나무-사람 그림에서 표현되지 않는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K-HTP를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분석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한다.

K-HTP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아동의 K-HTP 사전검사에서는 아동이 집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있는 것이며, 밑에 있는 아이의 경우 성이 다른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이며, 나무는 32살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을 준다고 한다. 전체적인 그림의 구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지나, 8살의 아동의 그림발달로 볼 때 다소 미흡한 표현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선의 사용에 거침이 없으며, 집 그림에서 창문이 많이 그려져 있고, 계단은 문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창문과 연결되어진 것으로 아동은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상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그림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회피 및 방어적인 성향이 보여지며,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아동으로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을 표현하였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자기통제가 되어 지면서, 환경에 적절하게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예민하게 대응하기는 하나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보아 사회성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B아동의 경우 처음 관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하고 어색해 하며, 그림검사에 대해 방어적이며 그림검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나, 많이 망설이며 관계에 대해 어색해하고 힘들어하였다. B아동의 K-HTP는 아빠가 배를 따고 있으며, 자신은 아빠를 보고 있는 것이며, 나무는 배나무로 10살이며 건강하고 잘 자랄 것 같다고 하였다. 집 그림이 현실세계에서 집 이라기보다는 동화 속의 성과 같아 보이며 아빠가 배를 따고 있는 모습을 창문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으로 보아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경계가 있으며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성향으로 현실지각능력이 다소 부족 할 수 있고,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미흡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며 심리적인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보여졌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선이나 필압에 자신감이 있고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보여 지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C아동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자신이 사다리를 타고 사과를 따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가족이 사는 집이며 행복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힘없는 표현을 하였으며, 나무는 사과나무이며 18살로 건강한 나무라고 하였다. C아동의 경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욕심은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택에 대해 다소 주저함이 있다. 그리고 자기 개방을 잘하지 않으며 여성적이며 민감한 성향을 보여주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필압이 약하고 여러 선들이 그려졌는데, 이

는 심리적인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현실을 회피하고자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피하고자하는 성향을 보여 지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보여 졌는데, 이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D아동의 K-HTP는 본인이 계단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며, 동생은 거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나무는 귀여운 나무로 열 살이며, 건강하고 잘 자랄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집 계단은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고, 주방에 있는 계단은 자신을 안 다치게 하는 계단이라고 하며, 많은 산을 그렸다. 이로 보아 아동은 자기를 드러내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며, 다소 불안한 심리가 보여 졌으며, 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요구와 애정에 대한 욕구가 보여 졌으나, 사후그림에서는 선의 사용에 자신감이 있으며 자기감정 및 자기요구에 대한 표현이 보여 지고 타인과 관계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아존중감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K-HTP 그림 검사 사전 사후 비교분석

대상	K-HTP 사전	K-HTP 사후
A아동		
B아동		
C아동		
D아동		

4.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과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변화과정을 알아 보기 위해서 미술치료를 22회기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회기별 활동사진은 <표 6>과 같고, 미술치료 활동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아동과의 라포형성을 하기 위한 이름을 꾸며 자기표현하기를 하였다. 4명의 아동들은 모두 이름을 먼저 적고 난 후에 꾸며주기를 하였으며, A아동은 이름을 적어 디자인을 하고 주변을 꾸며주었고, 매직을 사용해서 채색을 하며 여러 가지 색의 사용을 즐겼으며, 거대한 나뭇잎을 그렸으며 나무 산에 올라간다고 하였다. 산만함을 보이며, 강한 필압과 흔들리는 선의 사용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표현에 주저함이 있어 보였다.

B아동은 자기 이름을 적어서 표현하고 표현에 망설임이 많았으며,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많으며 어려워하였다. 또한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표현력이 부족했으며, 심리적인 위축이 있어 라포 형성을 위한 작업이었으나 방어적이어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C아동은 엄마가 화를 잘 내시는 편이지만 오늘은 엄마 생신이어서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되니깐 화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POP로 꾸며주었으며, 자기개방을 잘하지 않고 조용하며 에너지가 낮은 편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표현은 하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가가는 것에는 방어적이었으나, 미술표현에 있어서는 자기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표현하였다.

D아동은 엄마생일이지만 생일선물을 사고 싶지 않다면서, 엄마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려주고 하트로 화지를 꾸며 주고 하트와 색의 사용을 많이 하였다. 이는 아동이 사랑과 애정에 대한 강한 욕구와 자기 인정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3회기에는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개념 인식 및 자기표출을 통한 라포 형성을 위한 만들기를 하였다. 아동의 경우 그림에 대해 방어적이고 주제에 맞게 작업하는 것에 대한 방어가 있으나, 연령과 상관없이 만들기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만들기 작업에 대한 흥미와 작품의 완성에 대한 자기 만족도가 높은 편이므로 2회기에는 원목 목걸이 만들기를 완성한 후 아동들은 목걸이를 곧 바로 목에 걸었으며, 자신의 목걸이에 대해 자랑하고자 하였다. 원재료는 같았으나 표현방식은 달랐으며, 완성된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표현이 많아지면서 라포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4회기에는 점토로 심리적인 이완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라포 형성을 위한 점토로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점토의 재질과 촉감을 통해 에너지가 높거나 저학년 아동은 심리적으로 이완이 되었으나, C아동의 경우 심리적 이완을 잘하지 못하고 통

제되어 있어 감정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하게 되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상황이라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서 인지 쉽게 감정이 정리되지 못하였다. A아동은 점토를 한참을 만지작거리며 점토의 촉감을 즐기고 나서야 최대한 커다란 칼을 만들어주었으며, 칼이 빨리 말라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A아동의 경우 재료의 활용이나 사용에서 조직적이지 못하였으며, 강해지고 싶은 욕구와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B아동은 개학 후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은 좋았지만 남자 짝궁이 괴롭혀서 속상하다고 했으며, 친구가 자꾸 괴롭혀서 때려주었다고 하였다. B아동은 점토를 만지면서 촉감을 즐겼으며, 무엇을 만들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비를 만들어 주었고, 나비는 조개나비라고 하였으며 점토놀이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이완되는 듯이 보였다.

C아동은 개학해서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았으나, 짝궁이 없이 혼자 앉게 되어 많이 외롭다고 하면서 한 달이 빨리 지나 자리를 교체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점토로 벽돌을 쌓아 침성대를 만들었는데, 침성대를 만들기에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만들어진 침성대가 답답해 보였다. 자기감정표출을 하지 못하고 틀 속에서 갇혀진 듯이 보여 지며 현재의 동생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듯하였다.

D아동은 예전 짝궁은 자신을 괴롭혔었는데, 새로 바뀐 짝궁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서 개학이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점토를 한참을 가지고 즐기다가 잠자리를 만들었으며, 점토만들기를 즐거워하며 재료의 사용에 욕심을 내기도 한다. 재료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해도 눈치를 살피며 친구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5~6회기에는 심리적 이완을 통한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고 아동의 욕구발산을 위한 자유화로 구성하였다. A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형이랑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형한테는 안 그런데 자기에게만 빵을 사준다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꿈속을 그렸는데, 꿈속에서 엄마와 자다가 혼자 숲에 갔던 모습이며, 멀리서 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자유화에서 아동은 자기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형과 가까워지고 놀고 싶은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형하고 함께 놀 때 힘든 상황으로 인해 꿈속 그림에서 양가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 진다.

B아동은 말하는 것과 예쁜 것을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성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채색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으며, 채색을 할 경우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것은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릴 때도 주변을 살피가며 집중을 잘하지 못하여서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그림에서 아동은 가족관계에 대해 표현하였으며, 자신과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칠 때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표현하였다.

C아동은 동생들을 돌보지 않을 때가 가장 행복하며, 동생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하였으며, 비 오는 날 풍경을 그렸다. 비가 와서 집에 못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모습이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갈 수 가 없어서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아동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소극적이며 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D아동은 동생 때문에 혼나서 기분이 안 좋으며, 그것 때문에 배가 더 많이 고프다고 말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비가 와서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낙엽도 떨어지고 낙엽 속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를 배고픔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과식을 하기도 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7회기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긍정적 감정회복 및 관계 증진을 위해 추석하면 생각하는 것을 그리도록 하였다. A아동의 경우 아빠가 돌아가셔서 추석이면 제사를 지내는데,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며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아빠가 있으면 돈도 벌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형들과 노는 것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자신을 많이 놀려서 짜증이 나기도 한다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심리적인 위축이 보이기도 하였다.

B아동의 경우 아빠가 쉬는 날 이어서 아빠를 만나러 빨리 가고 싶다면 아빠는 자기와 놀아주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추석에 대해 그리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였는데, 이는 추석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석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했던 일을 그린다면 가족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다. 이것으로 보아 아동은 추석과 연관된 가족과의 관계에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C아동의 경우 추석에는 모두 울산에 가는데 울산에는 가족이 많이 복잡하고, 추석이 되면 집이 복잡해진다면서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동생은 춤을 잘 추어서 울산에서 춤을 추면 이모나 고모한테 용돈을 받는데 자신은 그냥 옆에서 용돈을 받는다면서 옆에서 용돈을 받는 모습을 그렸다. 이로부터 추석이 되면 동생의 경우 친척들에게 관심을 받는데 비해 자신은 드러나는 것이 없어 다소 위축되는 것을 보여진다.

D아동의 경우 추석에는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추석이 다가와서 기분이 좋아진다 고하면서 추석에 놀러 갔다면 친척집에서 동생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자신은 노래와 춤을 잘 추어서 고모랑 이모가 모두 용돈을 주어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주제가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으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이어서 기분 좋게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추석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8회기에는 심리적 이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구리 알 꾸미기를 하였는데, 개구리 알이 물속에서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인 이완이 되었으며, 개구리 알들이 예쁜 어항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항을 꾸며주었다. A는 변화에 관심을 가졌으나, 꾸며 놓은 어항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았으며, 자기표현이 다소 서툴렀다. 그리고 B는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신나하며 관심을 가졌으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며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

C는 알의 변화를 보고 흥미로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 욕구와 감정을 통제 하며 심리적인 위축을 보였으며, D는 개구리 알을 많이 넣어서 욕심을 부리며 충분히 욕구를 충족하고 나서야 투명 컵을 꾸며주었다. 꾸미기를 할 때는 차분하게 작업을 하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야 시작을 한다. 이는 애정에 대한 욕구와 관심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인 것으로 보여지며, 형제가 많아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속상함도 늘상 표현하는 아동이다.

9회기에는 자아개념 인식 및 현실지각을 통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풍경화를 그리도록 하였다. A아동은 사람, 나무, 새, 나비, 꽃을 그려주고, 나무그림에 가지의 연결이 잘 안보이며, 그림의 연결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생각과 행동이 상하며, 자기 생각에 대한 표현 및 자기감정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B아동은 자신과 엄마를 예쁘게 그려주며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주제와 상관없이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이 현실지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C아동은 학교에서 자리 바꾸기를 했는데, 떠드는 두 명의 아이들이 선생이 가까이로 자리를 바꾸어서 자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싫다면서, 빨리 한 달이 가서 자리 바꾸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즐겁게 보내면 시간이 더 잘 가겠죠”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그리고 나무 집 꽃들을 그린 후 뒤늦게 사람을 그려주었으며, 창문이 가지런하며 나무뿌리가 갈퀴처럼 이루고 있는 것을 그리면서 집과 나무그림 풍경을 그리면서, 자기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내면이 보이는 것을 거부하며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D아동은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었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며 자기에겐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하였다.

10회기에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및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비 오는 날을 그리도록 하였다. A아동은 비 오는데 학교에 혼자 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도로와 집을 검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아동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자기감정 표현이 서툴러 심적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며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아동은 비 오는 날 자기와 엄마와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 표현하였으며, 비 오는 날에

대해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채색을 가장 힘들어 했으며,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C아동은 학교에 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모습이라면서 집과 우산을 든 자신을 그렸으며, 아동은 스트레스가 많으며 이를 피하고자하는 생각은 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이를 스스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D아동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는데, 비가 조금만 내리고 있는 모습이며 비를 먼저 표현하고 우산 쓴 모습을 그려주면서, 우산은 비를 피할 수 있다면서 주변을 하트로 표현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며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피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1회기에는 심리적 이완 및 긴장완화를 위한 난화그리기를 통해 자기내면을 표출하고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다.

A아동, B아동의 경우 낙서하기를 힘들어하며 심리적인 이완과 자율적이지 못하고, C아동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낙서와 찾을 그림을 미리 생각하며 그렸으며, D아동의 경우 낙서를 즐기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채색과 찾기를 하며 자기표현이 좋은 편이다.

12회기에는 자기만족감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완성 된 작품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증진을 위한 움직이는 고양이를 만들어 보았다. 만들기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있지만 조작이 가능한 것 이어서 활동하고 조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A아동은 센터에 있는 형에게 까불다가 혼이 났는데 혼나도 형한테 까불면 재미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며, 잘 지내고 싶기는 한데 혼나도 까블며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한다. A아동은 색의 표현보다는 자기표현을 들어주고 긍정해 주는 것에 반응하며 욕구를 분출하기를 좋아한다. B아동은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다가, 채색을 하고 꾸미기를 완성 한 후에는 고양이를 조작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놀이를 즐겼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며, 자기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편이었다.

C아동의 경우 옆구리 쪽이 자꾸 아파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도 동생을 돌볼 수 있도록 동생 것을 만들었다.

D아동의 경우 자기 작품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며 놀이를 하는 것을 즐기며 호응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13회기에는 요술나무를 그려 자기인식 및 자기탐색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증진 및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다.

A아동의 경우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허수아비와 감이 떨어지는 나무이며, 사과와 은행,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라고 하였다. A아동은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놀이에 더 관심을 가지며 자기에 대해 인정해 주고 함께 놀아주면서 즐거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B아동의 경우 요술나무라는 것에 잠시 뜻을 이해하지 못해 설명해 주니 금새 밝은 모습으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나무를 그릴 것이며,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는 나무라고 한다. 소원이 무엇이나 물으니 자신은 소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아동의 경우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미흡한 편이고 감정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C아동의 경우 소원을 들어 주는 나무를 표현하며 현실에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나무를 그렸다. 공부를 잘하면 취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였다.

D아동이 경우 욕구와 욕심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열리는 나무를 그려 아동의 욕구를 표현하였다.

14회기에서는 심리정서적 이완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자유화를 그려보도록 하였다.

A아동은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여 다소 과하고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있으며, 관심에 대한 욕구와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충족하고자하는 경향이 보인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그려주고 자신은 횡단보도에 서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 방어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주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B아동은 아빠가 평일 날 쉬는 데 오늘 쉬는 날 이여서 좋다면서 아빠는 매일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한다. B아동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자주적인 힘이 약하여 자율적인 주제를 어려워하며, C아동은 4색 무지개 색을 표현하였는데, 검찰청에서 장학금을 받은 감정을 무지개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아픈 것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표현된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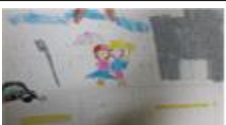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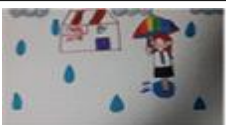





















D아동은 꿈 이야기가 많으며 부정적이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야기와 다르게 그림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는었다.

15회~17회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통해 자기 탐색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 하였으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관계 탐색을 통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작업도 하였다. 또한 카드 만들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생각과 탐색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선물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카드 만들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물을 받고 카드를 준다는 것에 많은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이 수용되어 지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하면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며,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보였다.

18회기에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연필깎기를 아이클레이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기를 하였는데, 아동들은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 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작업에 몰두하였다.

A아동은 아이클레이의 감촉을 많이 즐겼으며, 아이클레이를 직접 붙이면서 완성했으며,

〈표 6〉 회기 별 미술치료 활동 사진

대상	A아동	B아동	C아동	D아동
1 회기				
2 회기				
4 회기				
6 회기				
10 회기				
13 회기				
17 회기				
18 회기				
20 회기				
21 회기				

B아동은 예쁜 것을 꾸밀 수 있다는 데 너무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크리스마스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표현하였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빠가 침대를 사준다고 해서 많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C아동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자신이 잘했던 일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자기감정을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에 힘을 얻는 듯했으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정성을 들여서 조심성 있게 만들어 주었다.

D아동은 함께 하는 작업보다는 만들기를 해서 자기만의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장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아이클레이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었고, 아이클레이로 구슬을 만들어서 연필깎기 통 속에 넣어 주었다.

19회기에는 심리적 이완 및 협동놀이를 통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튜브벨 만들기를 하였는데, 튜브벨은 모양의 선정에서도 서로의 욕구가 다르지만 채색하고 소리에 반응하며 흥미로워하였다.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을 소리를 내어 소리를 들어 보면서 이전의 경험과 함께 하여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B아동의 경우 아빠가 침대를 사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침대에서 자면 공주가 된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아 행복하다고 한다. C아동은 지난주에도 동생을 돌본다고 힘들었다며, 동생이 예쁘기는 하지만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한다. D아동은 친구들이란 귀신놀이 하다 친구들이 고통쳐서 선생님에게 들켜 혼이나 벌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다고 한다. 튜브 벨을 완성 후에 소리를 내어보기도 하고 소리가 아름답다며 기분이 매우 좋아 졌다.

20회~22회기에는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머리핀 만들기, 손수건 염색, 메모꽂이 만들기를 하였으며 만들기 한 작품을 서로 나누거나 선물하기를 통해 상호관계 증진 및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마무리활동을 위한 작업들이서 흥미로워 했으며, 다양한 재료들을 통한 만들기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였다. 욕심이 많던 C도 재료의 다양함과 풍족함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보였으며, 예쁜 것을 좋아하던 B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늘 배려하고 양보하던 C는 자기표현이 많아 졌으며, 정신없이 산만하던 A도 미술치료활동이 끝나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성 검사, K-HTP 그림검사의 사전 사후 결과 분석을 하였고, 회기별 아동의 변화를 관찰

하고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는 자아존중감 검사 사전 사후 검사를 한 결과 사전보다 높은 사후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K-HTP 그림검사 분석에서도 사전보다 사후 그림에서 자기 표현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치료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송희정·김희정·김선현(2007)의 연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이현주(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박수정·최연실(2009)의 연구와 국제결혼가정(온누리안)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오가영·이숙(2009)의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는 사전 사후 사회성 검사를 한 결과 사전보다 높은 사후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K-HTP 그림검사를 분석에서도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미술치료가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조영숙(2012)의 견해와 유사하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효과(박수정, 최연실, 2009), 국제결혼가정(온누리안)자녀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오가영, 이숙, 2009)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는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일반적 가정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국한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사례수가 적고, 가정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성별, 지역에 따른 더 많은 연구의 수행과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미술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외국노동자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등 보다 확대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다문화가정 부모 미술치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종두 (2010). 초등학생 사회성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연구 원**, 6(6), 161-181.
- 김현영 (2015).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푸드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지 (2010).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순 (2014).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양적연구. **한국임상보건과학의 저널**, 2(2), 107-118.
- 박명숙 (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 박수정, 최연실 (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521-2538.
- 배홍숙 (2014).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봉희 (2011). K-HTP 그림검사에 나타난 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반응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미술 디자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성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 195-242.
- 이현주 (2011).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8(2), 245-266.
- 오가영, 이 숙 (2009). 집단미술치료가 국제결혼가정(온누리안)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무역통상학회지**, 5(2), 169-196.
- 송희정, 김희정, 김선현 (2007).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이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치료학연구**, 2(2), 109-128.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정현임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 (2012).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291-314.

- 조용태, 이근매, 이도균 (2004). 구조화된 집단미술치료가 도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6(2), 98-118.
- 주희연 (2012). **점토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남, 전종국, 신 영 (2007). 아동, 청소년상담: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 감소와 자아존중감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연구. **한국상담학회**, 8(3), 1101-1119.
- 하미용, 남상권 (201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 219-245
- 황매향, 하혜숙, 강기현, 여태철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3(1), 71-96.
- 교육과학기술부 (2015).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다문화교육정책보고 안전행정부, (2015),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발표
- 통계청 (2014).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 발표
- Rosenber.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 Case Study of Art Therapy for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Hyejeon Suh · Miae Le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art treatment programs conducted 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ttending community children centers on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Selection of target children was made from children attending a community children center located in S District wher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densely located and 4 multicultural children were selected and a total of 24 weekly sessions were conducted. After applying art therapy as a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elf-esteem and sociality showed scores that were higher in post-tests than in pre-tests and pre-analysis and post-K-HTP picture analysis showed there were changes in figure sizes, line use, and symbolism and these results show that group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in enhancing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use community children centers.

Key words : community child center, multiple cultures, self-esteem, art therapy

영아의 기질 및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

강 경 희* 김 민 정** 김 혜 영**

〈요 약〉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또래 부적응 행동인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3곳의 재원 중인 만 2세반 영아 5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에서는 영아의 기질특성 가운데 영아의 적응성은 또래 공격성에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기질의 다른 특성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 가운데 애정적 양육태도만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영아의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는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이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태도를 보였다. 넷째,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영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가운데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적응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기분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3가지 경우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가 보이는 특성은 선천적인 기질의 문제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영아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영아의 기질, 아버지 양육태도, 또래 공격성, 위축

· 논문접수: 2016. 4. 28 / 수정본접수: 2016. 6. 28 / 게재승인: 2016. 7. 30

*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과정/동원대학교 시간강사, 주저자

**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과정, 교신저자 (kmjsbk@hanmail.net)

****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 교신저자 (mun704@hanmail.net)

I. 서론

통계청(2015)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10명 중 9명(90.9%)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도의 48.8%에서 2014년에는 51.3%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의 확대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 등의 정책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 자녀 양육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담당하고 경제적 활동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이분법적이었던 가족역할에 대한 페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버지 자녀양육의 참여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더불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 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연령은 점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2002년 전체 영아(만 0세-2세) 중 약 12%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반면, 2013년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약 63%로 나타났다. 그 중 만 2세의 경우는 약 85%정도까지 높아졌다(통계청, 2013). 이처럼 영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영아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많아져 영아의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의 사회성 발달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기초가 되므로 영아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아는 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또래와 함께 하는 환경이 늘어났지만 모든 영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한 것은 아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영아도 있지만 어떤 영아는 또래 부적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래 부적응이란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기피하고 위축된 행동으로 이러한 부적응 행동들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래관계에서 부적응은 외현화 부적응 행동인 공격성과 내현화 부적응 행동인 위축으로 구분된다(French, 1990).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은 또래에게 해를 가할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강미식, 2001), 위축은 주변자극에 둔감하고 또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등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권명희, 1999).

만 2세와 같은 어린시기에도 이미 또래 상호작용에서의 개인차는 나타나고(Brownell & Brown, 1992), 유아기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개인차는 이후의 또래 간 사회적 유능감과 심리적 적응을 예언한다(Coie, Terry, Lenox, Lochman &

Hyman, 1998). 또한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가 쉽고(박화윤·안라리, 2006; Perry & Bussey, 1984), 적응적이고(송진숙·권희경, 2003),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고(Cole, Usher & Cargo, 1993), 성인에게 선호 받음으로서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Raver & Zigler, 1997). 반면,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한 유아는 다른 또래들과의 갈등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복종적이 되며,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Asher & Rose, 1997)을 보일 수 있고 이를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행동문제, 물질남용, 학교생활 부적응, 폭력,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Merrell, 2001). 따라서 만 2세 영아들은 또래집단 속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또래 공격성 및 위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개인적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질이다. 기질은 인간의 행동경향에 있어 생물학적 뿌리를 둔 개인적인 차이로 생애초기에 나타나며(Bates, 1989),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주위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의 한부분이다(나양균, 2005; 박수빈·김숙령, 2005). Thomas Chess(1977)는 종단연구를 통해 개인적 특징을 묘사하는 9개의 범주로 행동적 측정을 통해 기질을 3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들은 유아의 활동수준, 규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반응역치, 반응 강도, 기분, 주의 전환성, 집중성과 지속성의 9가지 구성요인에 따라 쉬운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3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에 Saslow(1993)는 영아의 기질을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 강도, 기분의 5가지 요인으로 재정립하였다. 즉, 기질은 영아가 외부의 자극, 기회, 기대 또는 요구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한지현·이영화, 2005).

Calkins(1994)는 유아의 유전적 특성은 아동의 공격성과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성이 높고(김정원·김현주, 2007), 적응성이 높으며(류현강, 2007), 정서적 반응정도가 낮은 유아는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수경, 2007). 낮은 적응성(이찬숙·현은자, 2008)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축은 아동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이지만 공격성에 비해 위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활동성' 및 '회피' 기질은 위축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활동성이 낮고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위축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박지숙·임승현·박성연, 2009)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축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부모의 거부적 양육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에 대한 표상은 더 부정적이었다(김귀연·김경연, 2004)는 결과와 같이 유아의 기질은 또래 관계에서 보

여지는 공격성 및 위축과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질과 또래 공격성과 위축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Brownell과 Hazen(1999)은 기질적 차이는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보다 더 어린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영아들의 또래관계에서 기질적 특성은 매우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 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 2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또래 공격성과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부모에게서 거부당한 아동은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타인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협조성이 높고(홍계옥, 2001),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은 반면, 권위주의적일수록 친사회성이 낮고 공격성과 수줍음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지신, 1996). 또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유아의 또래관계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최미숙·송순옥, 2013),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 높을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박광윤, 2000; 최경순, 1992). 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고(McFadt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일 경우는 공격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정문자·김문정, 2004). 또한 아버지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높아지고(박성연, 2002; 이세빈, 2013), 아버지의 통제적 태도가 높아질수록 대인공격성, 유아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미라, 2013). 이처럼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버지의 부모역할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재림·김지애·이윤주·진윤아,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미치는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장영애·이영자, 2009; 한누리·문혁준, 2014; 황선실·황희숙, 2014), 양육태도(김영희·김신정, 2008; 권영임, 2012), 양육행동(장영애·이영자, 2013) 등으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는 정서적인 흥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여기

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Hemphill과 Sanson, 2000). 이는 영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낸다(곽혜경·조복희, 1999; Kyrios & Prion, 1990). 또한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달라지고 이러한 작용에 의해 자녀의 발달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김말경, 2011).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기질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유아의 기질에 따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관련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변인간의 관련성에 기초할 때, 영아의 기질은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거쳐 또래 공격성 및 위축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정서와 행동 조절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특히 생후 1~2년 동안의 정서와 행동 조절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녀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Easterbrooks, Raskin, & McBrian, 2014). 이처럼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중요성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또래 부적응 행동인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이론 정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영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태도,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영아의 기질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 문제 3>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 문제 4>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3곳에 재원 중인 만 2세 영아 50명과 영아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은 여아가 27명(54%), 남아가 23명(46%) 순이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22명(44%), 둘째가 20명(40%), 셋째 이상이 8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보육경험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보육경험이 23명(46%), 어머니 양육이 19명(38%), 조부모 및 친척 양육이 7명(14%)이었고,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6~8시간 32명(64%), 8시간 이상 12명(24%), 4~6시간 6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31세~40세가 45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 36명(72%),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14명(2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취업모가 27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업주부 18명(36%), 전문직 10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1세~40세가 34명(68%)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 39명(78%), 고등학교 졸업 11명(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회사원 30명(60%), 자영업 10명(20%), 전문직 7명(14%), 공무원 2명(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300~400만원 미만 17명(34%), 200~300만원 미만 12명(24%), 500만원 이상 10명(20%), 400~500만원 미만 8명(16%), 100~200만원 미만 3명(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50)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영아의 성별			영아의 출생 순위		
남	23	(46)	첫째	22	(44)
여	27	(54)	둘째	20	(40)
			셋째 이상	8	(16)
영아의 보육경험			보육시설 이용시간		
어머니	19	(38)	4~6시간	6	(12)
조부모님	6	(12)	6~8시간	32	(64)
친척	1	(2)	8시간 이상	12	(24)
어린이집	23	(46)			
기타	1	(2)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30세 미만	3	(6)	30세 미만	2	(4)
31세~35세	28	(56)	31세~35세	16	(32)
36세~40세	17	(34)	36세~40세	18	(36)
41세~45세	2	(4)	41세~45세	12	(24)
46세 이상	0		46세 이상	2	(4)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14	(28)	고등학교 졸업	11	(22)
대학(대학교) 졸업	34	(68)	대학(대학교) 졸업	35	(70)
대학원 졸업	2	(4)	대학원 졸업	4	(8)
어머니 직업			아버지 직업		
전업주부	18	(36)	회사원	30	(60)
회사원	11	(22)	전문직	7	(14)
전문직	10	(20)	공무원	2	(4)
공무원	1	(2)	자영업	10	(20)
자영업	5	(10)	기타	1	(2)
기타	5	(10)			
가정의 월수입					
100~200만원 미만	3	(6)			
200~300만원 미만	12	(24)			
300~400만원 미만	17	(34)			
400~500만원 미만	8	(16)			
500만원 이상	10	(20)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 질문지는 모두 어머니, 아버지의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1)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llard와 Carey, McDevit(1984)이 개발하고 최영희(1989)가 번안하고 수정한 걸음마기 기질 질문지(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TTQ)를 기초로 한 김지선(2009)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6점)’ 중에서 평정하는 6점 Likert척도이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리적 규칙성은 식사, 수면과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을 의미하며, 접근성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의미하고, 반응강도는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분은 긍정적 기분을 많이 지님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생리적 규칙성(11문항)이 .95, 접근성(12문항)이 .81, 적응성(9문항)이 .96, 반응강도(10문항)가 .92, 기분(13문항)이 .96이었다(<표 2>).

〈표 2〉 영아의 기질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생리적 규칙성	1, 5, * 10, * 17, 20, * 23, *, 30, *, 34, 38, * 44, 46	11	.95
접근성	4, 8, 13, 15, 22, 26, 29, * 33, 43, 49, 53, *, 55	12	.81
적응성	7, * 19, 25, 32, 35, 37, 45, *, 50, *, 52, *	9	.96
반응강도	2, * 9, 11, 16, 21, 27, 31, * 40, *, 41, 47	10	.92
기분	3, 6, *, 12, *, 14, *, 18, 24, 28, *, 36, 39, *, 42, 48, *, 51, * * 54, *	13	.96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2)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만든 양육태도 질문지를 최순자(2005)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BRI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이론을 근거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태도의 경향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척도는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순자(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4가지의 하위요인 중 통제적 양육태도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양육태도 별로 각 10문항 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중에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이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애정적 태도(10문항)와 거부적 태도(10문항)는 .92, 자율적 태도(10문항)는 .87이었다(〈표 3〉).

〈표 3〉 아버지 양육태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애정적 양육태도	1, 4, 7, 10, 13, 16, 19, 22, 25, 28	10	.92
거부적 양육태도	2, 5, 8, 11, 14, 17, 20, 23, 26, 29	10	.92
자율적 양육태도	3, 6, 9, 12, 15, 18, 21, 24, 27, 30	10	.87

3)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은 부모는 아동의 능력과 문제행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부모, 혹은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성인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하는 행동평가 도구이다. K-CBCL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 행동 증후군을 적도화한 것으로 총 1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에서 '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2점)까지 3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영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행동인 또래 공격성(20문항)과 위축(13문항) 요인에 대한 33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는 영아의 또래 공격성의 경우 .87이었고, 위축의 경우 .74이었다(<표 4>).

<표 4>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또래 공격성	1, 2, 4, 5, 6, 7, 8, 9, 10, 12, 16, 18, 20, 23, 24, 26, 27, 28, 29, 32	20	.87
위 축	3, 11, 13, 14, 15, 17, 19, 21, 22, 25, 30, 31, 33	13	.74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2015년 6월 8일~17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3곳의 원장의 동의하에 그 관에 재원 중인 만 2세반 영아 6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15부를 제외 한 50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영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후, 영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아의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태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해석

1.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 양육태도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과 간의 관계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 양육태도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표 5>참조), 생리적 규칙성은 영아의 또래 공격성($r=-.50, p<.001$), 위축($r=-.63, p<.001$), 접근성은 영아의 또래 공격성($r=-.35, p<.05$), 위축($r=-.58, p<.001$), 그리고 적응성은 또래 공격성($r=-.51, p<.001$), 위축($r=-.60, p<.001$), 반응강도는 영아의 또래 공격성($r=-.30, p<.05$), 위축($r=-.44, p<.01$), 기분은 영아의 또래 공격성($r=-.45, p<.01$), 위축($r=-.62, p<.001$)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영아의 기질은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태도가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애정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또래 공격성($r=-.48, p<.001$), 위축($r=-.62, p<.001$), 거부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또래 공격성($r=-.32, p<.05$), 위축($r=-.46, p<.01$), 그리고 자율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또래 공격성($r=-.34, p<.05$), 위축($r=-.43, p<.01$)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 양육태도 역시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리적 규칙성은 애정적 양육태도($r=.73, p<.001$), 거부적 양육태도($r=.75,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율적 양육태도($r=-.75, p<.001$)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접근성은 애정적 양육태도($r=.55, p<.001$), 거부적 양육태도($r=.72,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율적 양육태도($r=-.69, p<.001$)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적응성은 애정적 양육태도($r=.66, p<.001$), 거부적 양육태도($r=.78,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율적 양육태도($r=-.81, p<.001$)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응강도는 애정적 양육태도($r=.59, p<.001$), 거부적 양육태도($r=.85,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율적 양육태도($r=-.87, p<.001$)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분은 애정적 양육태도($r=.73, p<.001$), 거부적 양육태도($r=.81,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율적 양육태도($r=-.79, p<.001$)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영아의 기질도 아버지 양육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 양육태도와 영아의 또래 공격성과 위축 간의 상관관계 (N=50)

	1	2	3	4	5	6	7	8	9	10
영아의 기질										
1. 규칙성	1	-	-	-	-	-	-	-	-	-
2. 접근성	.85***	1	-	-	-	-	-	-	-	-
3. 적응성	.91***	.86***	1	-	-	-	-	-	-	-
4. 반응강도	.82***	.77***	.82***	1	-	-	-	-	-	-
5. 기분	.93***	.85***	.94***	.86***	1	-	-	-	-	-
아버지 양육태도										
6. 애정적	.73***	.55***	.66***	.59***	.73***	1	-	-	-	-
7. 거부적	.75***	.72***	.78***	.85***	.81***	.51***	1	-	-	-
8. 자율적	-.75***	-.69***	-.81***	-.87***	-.79***	-.50***	-.87***	1	-	-
문제행동										
9. 또래 공격성	-.50***	-.35*	-.51***	-.30*	-.45**	-.48***	-.32*	.34*	1	-
10. 위축	-.63***	-.58***	-.60***	-.44**	-.62***	-.62***	-.46**	.43**	.67***	1

* p<.05, ** p<.01, *** p<.001

2. 영아의 기질이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이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아의 기질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또래 공격성 및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참조). 그 결과, 영아의 기질특성 중 적응성($\beta=-.83$, $p<.05$)만 또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37%이었다. 즉, 영아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또래 간의 공격성이 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자극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또래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6> 영아의 기질이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β) (N=50)

	또래 공격성		위축	
	B	β	B	β
생리적 규칙성	-.16	-.62	-.11	-.42
접근성	.10	.38	-.05	-.19
적응성	.09	-.83*	.02	.08
반응강도	.07	.36	.10	.42
기분	-.16	.27	-.13	-.51
R ²	.37		.45	
F(df)	5.16*(5,44)		7.29(5,44)	

* p<.05

3. 영아의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이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아의 기질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참조). 그 결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생리적 규칙성($\beta=.66$, $p<.05$)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60%이었다. 즉, 아버지는 자녀의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할 경우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반응강도($\beta=.58$, $p<.001$)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74%이었다. 즉, 아버지는 자녀의 좋고 싫음에 대한 반응이 격렬할수록 거부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에는 적응성($\beta=-.62$, $p<.01$)과 반응강도($\beta=-.73$, $p<.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80%이었다. 즉, 자녀가 적응성과 반응강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다 많이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7> 영아의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β) (N=50)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B	β	B	β	B	β
생리적규칙성	.27	.66*	-.07	-.13	.00	.02
접근성	-.13	-.32	.03	.05	.11	.26
적응성	-.07	-.21	.06	.15	-.21	-.62**
반응강도	-.05	-.13	.30	.58***	-.30	-.73***
기분	.27	.69	.13	.24	.08	.19
R ²	.60		.74		.80	
F(df)	12.94*** (5,44)		25.21*** (5,44)		35.13*** (5,44)	

* p<.05, ** p<.01, *** p<.001

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참조).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beta=-.42$, $p<.01$)만 또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4%이었다. 즉, 아버지가 애정적인 태도를 자녀에게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또래 간의 공격성이 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축에서도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beta=-.53$, $p<.001$)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41%이었다. 즉, 아버지가 애정적인 태도를 자녀에게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또래 공격성 및 위축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8>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β) (N=50)

	또래 공격성		위축	
	B	β	B	β
애정적 양육태도	-.26	-.42 **	-.34	-.53 ***
거부적 양육태도	.02	.05	-.09	-.19
자율적 양육태도	.10	.17	-.00	-.00
R ²	.24		.41	
F(df)	4.91 ** (3,46)		10.83 *** (3,46)	

** p<.01, *** p<.001

5.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접근모델에 근거하여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때, 독립변인이 이전단계에 비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부분매개) 혹은 사라지고(완전매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이 서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의 하위요인인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과 위축 및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 간의 관계, 접근성, 반응강도와 또래 공격성 및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 간의 관계 7가지 경우가 이에 부합하였다.

1)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표 9>참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73$,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63$, $p<.0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 ($\beta=-.38$, $p<.05$)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35$, $p<.05$)는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영아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많이 접한 영아는 위축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 분석(β)
($N=50$)

	1단계	2단계	3단계
	애정적 태도	위축	위축
규칙성	.73 ***	-.63 ***	-.38 *
애정적 태도			-.35 *
R ²	.54	.40	.45
F(df)	55.86 *** (1,48)	31.83 *** (1,48)	19.53 *** (2,47)

* p<.05, *** p<.001

2) 영아의 접근성과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접근성과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표 10〉참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접근성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55$,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아의 접근성과 또래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5$, $p<.05$).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접근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41$, $p<.05$)만 또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아의 접근성은 또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접근성과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여,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많이 접한 영아는 또래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영아의 접근성과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 분석(β)
($N=50$)

	1단계	2단계	3단계
	애정적 태도	또래 공격성	또래 공격성
접근성	.55 ***	-.35 *	-.13
애정적 태도			-.41 *
R ²	.30	.12	.24
F(df)	20.51 *** (1,48)	6.73 * (1,48)	7.40 ** (2,47)

* p<.05, ** p<.01, *** p<.001

3) 영아의 접근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접근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다(<표 11>참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접근성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55,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아의 접근성과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58, p<.0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접근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44, p<.01$)만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아의 접근성은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접근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여,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많이 접한 영아는 위축된 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영아의 접근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분석 (β)
($N=50$)

	1단계 애정적 태도	2단계 위축	3단계 위축
접근성	.55***	-.58***	-.34
애정적 태도			-.44**
R ²	.30	.34	.47
F(df)	20.51*** (1,48)	24.50*** (1,48)	20.88*** (2,47)

* $p<.05$, ** $p<.01$, *** $p<.001$

4) 영아의 적응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적응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다(<표 12>참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적응성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67,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아의 적응성과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60, p<.0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적응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영아의 적응성($\beta=-.32, p<.05$)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41, p<.01$)는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영아의 적응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영아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많이

접한 영아는 위축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영아의 적응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 분석 (β)
($N=50$)

	1단계	2단계	3단계
	애정적 태도	위축	위축
적응성	.67 ^{***}	-.60 ^{***}	-.32 [*]
애정적 태도			-.41 ^{**}
R^2	.43	.35	.45
$F(df)$	36.14 ^{***} (1,48)	25.76 ^{***} (1,48)	18.9 ^{***} 5(2,47)

* $p<.05$, ** $p<.01$, *** $p<.001$

5) 영아의 반응강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반응강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표 13〉참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반응강도는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60$,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아의 반응강도와 또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0$, $p<.05$).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반응강도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46$, $p<.01$)만 또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아의 반응강도는 또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반응강도와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여,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많이 접한 영아는 또래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영아의 반응강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분석(β)
($N=50$)

	1단계	2단계	3단계
	애정적 태도	공격성	공격성
반응강도	.60 ^{***}	-.30 [*]	-.03
애정적 태도			-.46 ^{**}
R^2	.35	.09	.23
$F(df)$	25.86 ^{***} (1,48)	4.73 ^{**} (1,48)	7.00 ^{**} (2,47)

* $p<.05$, ** $p<.01$, *** $p<.001$

6) 영아의 반응강도와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반응강도와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 보았다(<표 14>참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반응강도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60$,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아의 반응강도와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44$, $p<.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반응강도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56$, $p<.001$) 만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아의 반응강도와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반응강도와 위축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여,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많이 접한 영아는 위축된 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영아의 반응강도와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분석(β)
($N=50$)

	1단계 애정적 태도	2단계 위축	3단계 위축
반응강도	.60***	-.44**	-.11
애정적 태도			-.56***
R ²	.35	.19	.40
F(df)	25.86*** (1,48)	11.53** (1,48)	15.39*** (2,47)

** $p<.01$, *** $p<.001$

7) 영아의 기분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기분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 보았다(<표 15>).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기분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73$,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영아의 기분과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62$, $p<.0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기분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영아의 기분($\beta=-.35$, $p<.05$)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37$, $p<.05$)는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영아의 기분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나, 유쾌하고 긍정적인 기분상태의 영아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를 많이 접한 영아는 위축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영아의 기분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분석(β)
($N=50$)

	1단계	2단계	3단계
	애정적 태도	위축	위축
기분	.73 ***	-.62 ***	-.35 *
애정적 태도			-.37 *
R ²	.53	.38	.45
F(df)	53.22 *** (1,48)	29.50 *** (1,48)	18.89 *** (2,47)

* p<.05,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2세 유아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하여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은 또래 공격성과 위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에서는 영아의 기질 특성 가운데 영아의 적응성은 또래 공격성에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위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자극과 반응에 적극적이고, 새롭고 낯선 환경에 잘 순응해 가는 영아들은 또래간의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는 적응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손소영, 2004; 이찬숙·현은자, 2008; 신애선·김경후·유지은, 2015). 반면, 류현강(2007)은 영아의 적응성과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적응성이 공격성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이유는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면 우울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영아의 동기 유발이 잘되고, 순하고, 모방, 친사회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잘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써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능력 또한 잘 발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신애선 외, 2015). 즉, 새롭고 낯선 환경에 잘 순응하는 영아들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반면 적응성이 낮은 유아는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가 낮아 부적응 행동의 하나로 공격성을 나타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영아의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 가운데 애정적 양육태도만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애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자녀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애

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애정성이 낮을수록 정서불안정,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에서 높게 나타난 국내 선행연구(허태희, 2008; 하영희, 2003)와 부모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신체화 경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Scheidt, 1999)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일어난다(장영애·이영자, 2009)는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영아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고, 거부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영아의 문제행동이 더 잦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영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영아의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이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태도를 보였다. 즉, 영아가 먹고, 자고 놀이를 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행동이 규칙적이어서 예측 가능 할수록 아버지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자녀에 대한 애정적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영아의 기질 특성 중 반응강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영아에게 관찰되는 긍정적인 반응 보다 울거나, 짜증을 내기, 저항하고 소리 지르기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기분상태와 활동량이 많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산만하고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특성과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허태희, 2008). 즉, 영아의 민감한 반응은 아버지에게 자녀양육을 힘들고 어렵게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자녀를 수용하기보다는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에게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영아의 기질 특성에서 적응성이 낮고, 표현이 적을수록 아버지는 자율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표현력이 없을수록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기위해 자율적인 태도로 영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에서 유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결과(홍미라, 2013)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는 인지 발달상 전조작기로 자기중심성이 강하므로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둘 경우 공격성이 나올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영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가운데 생리적 규칙성, 접근

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과 위축 및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 간의 관계에서, 접근성, 반응강도와 또래 공격성 및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 간의 관계 7가지 경우가 이에 부합하였다. 그 중에서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적응성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기분과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위축 간의 관계에서 3가지 경우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영아의 기질이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경우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영아가 생리적 규칙성이 높고,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기분의 영아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계없이 부적응 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접근성과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접근성과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반응강도와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반응강도와 위축 간의 관계에서 4가지 경우가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 연구 결과(김민아·이재신, 2004; 박보경, 2013)와 일맥상통한다. 즉, 아동의 기질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영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영아가 새로운 자극이나 위협한 것에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며, 사소한 부분에도 강한 반응을 보여 울거나 짜증내는 행동은 아버지의 거부적이거나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보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질 특성에 따라 양육태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영아의 선천적인 기질의 문제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영아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영아의 기질 특성 가운데 영아의 적응성이 또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 가운데 애정적 양육태도가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영향을 미치며,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기질 특성 가운데 반응강도에,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에는 영아의 적응성과 반응강도에 영향이 미친다. 이 같은 결과는 만 2세 영아의 부적응 행동 중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부분매개와 완전매개 역할이 발견되어 부적응 행동에 기질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타고난 특성의 기질보다 상대적으로 아버지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나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과 또래 공격성 및 위축에 관한 설문지를 어머니의 주관성에서만 조사되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다르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보고 외에 현장에서 영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 보고에 의한 관찰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 필요한 짧은 시간과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의 양이 부족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셋째, 영아의 기질과 문제행동 및 아버지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아버지인 원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가족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아버지 양육태도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의 참여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및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미식(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및 아동 개인적 변인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혜경·조복희 (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권명희(1999). 자기 주장훈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및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임(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6(2),
- 김귀연·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 거부적 양육 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난실(2004). 만 2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말경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발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 성과 기질의 중재적역할.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아·이재신(2004). 어머니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4(5), 145-167.
- 김영희·신정희(2008).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 14(1), 79-89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지선(2009). 가족특성, 영아의 기질, 보육경험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김현주(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련성 연구. 아동교육, 16(2), 85-93.
- 김은영(2005).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훈육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양균(2005). 영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현강(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화일보(2011). 프렌디가 뜬다, 2010, 12. 14.
- 박광운 (2000). 아버지의 자녀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빈·김숙령(2005). 영아기질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차이 및 기질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관계. 아동학회지, 26(3), 1-13.

박보경(2013).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67-81.

박지숙·임승현·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0(3), 85-98.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박화윤·안라리 (2006). 만 3, 4, 5세 유아의 연령별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전략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4), 351-369.

신애선·김경후·유지은(201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3), 173-191.

손소영(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 · 외현화 문제행동의 따른 기질특성과 부모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순옥·최미숙(2013).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57-78

송진숙·권희경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27-450.

이경하·서소정(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학회지, 19(3), 53-77.

이세빈(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림·김지애·이윤주·진윤아(2012).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특성의 관련성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 17(1)), 151-173

이찬숙·현은자(2008).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0.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27-450.

여성신문(2011). 아빠도 아이 키우는 기쁨 느낄래요, 여성신문, 2011. 12. 23.

장영애·이영자(2009a).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 18(3), 619-629.

장영애·이영자(2013b).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

- 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20(3), 357-373.
- 전홍주·최유경·최항준(201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회지, 17(3), 365-384.
- 정문자·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자(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 관계: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한누리·문혁준(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 9(3), 25-49
- 한지현·이영환(2005).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상황에 따른 모-영아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87-303.
- 황선실·황희숙(2014).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인간발달중재학회, 5(1), 71-93.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홍미라(2013). 아버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특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태희(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 Rose, A. J. (1997). Promoting children'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with peers.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literacy (pp. 196-224). New York: Basic Books.
- Bates, J. E. (1989). Concepts and measures of temperament. In G. Kohnstamm, J. Bates & M.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3-26). New York: Wiley.
- Brownell, C. & Brown, E. (1992). Peer and play in infant and toddlers. In V. Van Hasselt & M. Hersen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pp. 183-200). New York: Plenum.
- Brownell, C. A & Hazen, N. (1999). Early Peer Interaction: A Research

- Agenda,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403-413.
- Calkins, S. D.(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s(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nsideration*(p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nos.2-3, serial no.240).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ie, J., Terry, R., Lenox, K., Lochman, J, & Hyman, C. (1998). Erratum: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3), 587-588.
- Cole, P. M., Usher, B. A., & Cargo, A. P. (1993). Cognitive risk and its association with risk for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in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54-164.
- Easterbrooks, M. A., Raskin, M., & McBrian, S. F. (2014).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al regulation: Evidence from a high social risk sample. *Fathering*, 12 (1), 71-93.
- French, D. D.(1990).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girls.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Hemphill, S., & Sanson, A. (2000). Relations between toddler and preschoo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in an Australian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16th Biennial Meeting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 Development Beijing, China, July.
- Kyrios, M., & Prion, M. (1990). Temperament, stress and family factors in behavioral adjustment of 3-5-year-ol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 67-93.
- McFadyen-Ketchum, S. A, Bates, J.E, Dodge, K. A., & Pettit, G. S.(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errell, K. W. (2001). *Helping students overcome depression and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Perry, D. G., & Bussr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Saslow, E. R.(1993). Temperament and day care: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expression across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Scheidt, C. E. Waller, E, Schnock, C. Becker-stoll, F., Zimmermann, P. Lucking, C, Wirsching, M. (1999). Alexithymia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 in Idiopathic Spasmodic Torticoll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1), 47-52.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 Maxel.

ABSTRACT

The effects of infants' disposition and paternal parenting attitudes on their peer aggression and withdrawal

Kang Kyung-Hee, Kim Min-Jeoung, Kim Hye-Yo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fants' disposition and fathers'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ggression and withdrawal which are peer maladjustment behaviors surveying with 2 year old infants, and to investigate whether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lay a mediating role in relation to infants' temperament and their peer aggression and withdrawal.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with 50 infants in classes for 2 years of age in 3 day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do and their parent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r infants' disposition and peer aggression, only infants' adaptation and peer aggression was negatively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out of their disposition characteristics,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disposition and aggression were not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Second, out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s, only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er aggression and withdrawal. Third, for infants' disposition, the higher their physiological regularity was, the more fathers had affectionate attitudes in relation to their parenting attitudes.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lay a mediating role in relation to infants' temperament and their peer aggression and withdrawal, it was found that they play partly mediating roles in 3 cases: Out of sub factors of infants' disposition, their physiological regularity and paternal parenting attitudes play a mediating role in relation to infants' withdrawal, infants' adaptation and fathers' affectionate attitudes in relation to infants' withdrawal, and infants' mood and fathers' affectionate attitudes in relation to infants' withdrawal.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concerning characteristics that infants display, their behaviors may change in positive fashion depend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rather than a problem of inherited disposition.

Key words: Infants' disposition, paternal parenting attitudes, peer aggression, withdrawal